

[ 종합 ]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급제동'

## 국회 예산정책처 "계획 미비·타당성 조사 안돼 예산안 편성 불가"

### 규특법 개정 될지도 의문 ... 與野 예산 심의 과정 쟁점 부상될 듯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안에 대해 "사업 계획이 미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지역발전특별법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7일 '2009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데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오는 10월말 각 광역경제권으로부터 구상안을 제출받 11월 각 지역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을 조적,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확정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추진 체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일부 광역경제권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보류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나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 및 지역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 차이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총 2천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1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부정적 입장에 따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예산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해 사실상 호남의 경제적 낙후를 부르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역행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지역발전특별법회의 채택 수경에 나서는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일전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동철(앞줄 가운데)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재균(· 왼쪽) 의원 등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중인 '5+2 광역경제권'의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5+2 광역경제권' 재조정 압박

## 호남 지자체·정치권, 총리 방문 등 반발 확산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산업 선정에 대한 수정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어 광주, 전남도, 전북도 등 자치단체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광역경제권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9일 과천시부중합성사에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세부프로젝트 설명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선도산업 추진방향 ▲선도산업 추진계획서 세부 작성 요령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선도산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호남권은 사실상 배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재균(광주 북구) 의원 등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광역경제권 계획의 수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광주 R&D 특구 조성,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건립, J 프로젝트, 서남권 중흥조 선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선

도사업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의회도 이날 정부의 광역경제권 전면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주, 전남·북 시·도지사들도 다음 달 5일 전남도청에서 호남권 시·도지 사정책협의회를 갖고 광역경제권에 대한 3개 시도의 입장·협력방안 조율과 대정부 건의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28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내년도 국회예산 확보 관련 정책 건담회를 갖고 5+2 경제권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영기·김지복기자 penfoot@

# 전남산 식육제품 멜라민 '안전'

전남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돼지고기는 물론 햄과 소시지 등 관련 식육제품에도 멜라민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27일 도내 축산물작업장 34곳에서 생산·보관하고 있는 쇠고기·돼지고기 및 육가공품 등 84건을 수거 정밀 검사한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

다고 밝혔다. 이번 정밀검사는 전남도내 도축장 15곳 57건과 식육 가공공장 19곳 27건에 대해 이뤄졌다. 식육은 한우 8건·젓소 2건·육우 2건·돼지 24건·닭 9건·오리 12건, 식육가공품은 양념육 14건·분쇄육 6건·햄류 6건·소시지 1건 등에 대해 시행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버경영안정 대책 요구 광주·전남 농민들

### 오늘부터 동시다발 야적 시위

지난달 버 출하거부를 결의하고 최근 전남도청 앞에서 대규모 야적 시위를 벌인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28일에는 각 시·군별로 야적 시위를 벌인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전국 차원의 동시다발 야적 시위가 예정된 28일 광주·전남지역 농민들도 각 시·군청 앞에서 버 포대를 쌓아놓고 야적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농민회는 현재 전남지역에서 진행 중인 버 출하거부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율이 70%를 넘는 가운데 농협측이 나락 40kg들이 1포대에 선지급금 5만~5만5천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출하거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나락 1천400여 포대를 쌓아놓고 8일째 천막농성을 벌여온 농민회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의의를 따라 27일 도청 앞에 나락 400여 포대를 추가로 쌓으면 계속 협의를 철회하고 도청 앞 농성도 풀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민심이 있어야 경제가 살지

# 전남 교통 사고·자살률 전국 최고

전남은 운수사고나 자살,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출생·혼인·이혼·사망통계로 본 2007년 광주전남' 자료에 따르면 운수사고나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은 전남이 10만명당 81.6명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또 특정 감염성과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전남은 10만명당 12.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운수사

고나 자살 등에 의한 사망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강원도로 80.7명이었고 이어 충남(77.9명), 제주(73.9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57.5명으로 전국 8위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43.9명)로 집계됐다. 또 특정 감염성과 기생충성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두번째로 높은 곳은 경북(12.5명)이었고 이어 울산(12.4명), 부산(11.9) 등의 순이었으며 광주는 9.3명으로 11위였고 가장 낮은 곳은 제주(7.9명)였다. /최정호기자 choie@kwangju.co.kr

#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 오늘 개막

## 경남 창원 일대...이만의 장관 의장 후보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28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세계 160여 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대표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린다.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람사르 총회는 내달 4일까지 8일간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주제로 본회의와 아시아-아프리카-아메리카-유럽 등 대륙별 지역 회의, 특별 연설, 환경 분야별 보건 상황과 결과를 설명하고 보고하는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의제와 의사 규칙 채택, 의장단과 상임이사국 선출, 행정 이행 위원회 구성, 상임위원회 의장 보고, 세계습지 NGO 대표 보고에 이어 이·아나 티에가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이 지구 차원의 협약 이행개요에 대해 설명한다.

또 당사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총회에서 채택할 람사르 결의문과 권고문에 담을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한다.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의 준비회의격인 제8차 람사르협약 상

Portrait of Lee Man-won with text: 임위원회는 27일 개최된 대한민국의 이만의(사진) 환경부 장관의 의장 후보로,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을 교체한 후보로 추천했다. 한편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 NGO네트워크'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순천과 경남 창령에서 열린 세계 습지 총회와 27일 선언문 발표와 함께 폐막했다. 또 순천시는 순천만에 '람사르 길'을 조성, 28일 총회 개막일에 맞춰 준공식도 갖는다. /연합뉴스

###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광고접수안내

###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산행안내

### 광주도요산악회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1일) 6시30분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1일) 7시30분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1일) 8시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1일) 9시

### 11월 4일(화)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4일) 8시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4일) 9시

### 11월 5일(수)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5일) 8시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5일) 9시

### 11월 6일(목)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6일) 8시
- ▶ 광주도요산악회 보은 속리산(11월6일) 9시

###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구분도안 공고 산지구분도안 공고